

發達心理學의 回顧와 展望

李 璠 仁

中央大學校 兒童教育學科

發達心理學의 主體인 아동은 發達主體로서 충분한 價値가 附與되지를 못하였다. 兒童發達에 관한 科學的인 研究가 시작되기 이전의 兒童觀은 성인이 주체가 되고있는 社會規準에 의하여 이미 規定된 方向으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存在로서 看做되었다. 즉 成人 映像의 縮少로서 간주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아동은 教育에 의하여 그 발달이 형성되고 訓育을 통하여 社會規準에 적합한 道德的인 市民으로서 그 발달이 방향지워져야 하는 것으로 看做되었다. 西歐社會에 있어서는 Christianity가, 그리고 우리 나라 및 그 인접 東洋社會에 있어서는 儒敎의 思想이 인간 발달에 대한 이와같은 基本的인 觀點을 胚胎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個體發達에 관한 心理學的 研究가 體系的이고 科學的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있었던 兒童發達觀에 기여한 다른 하나의 요소는 人間的發達 過程에서 출현하는 어느 특정한 行動樣相을 個體發生學的 의미에서의 遺傳的인 傾向으로 돌려 해석하려는 家系尊重思想이었다. 다시 말하면, Christianity의 人間性에 대한 罪惡說, 따라서 發達は 善良한 人間改造를 목표로 志向되어야 한다는 基本概念, 혹은 儒敎思想에서의 善-惡 觀念에 의한 인간행동의 評價, 따라서 人間行動發達は 勸善의 方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基本概

念과 아울러 個體 行動 發達에서 출현하는 어느 특정한 행동이 上述한 概念으로서의 人間發達 目標에서 離脫될 경우 그것을 個體 遺傳 背景이라는 극히 일반적인, 따라서 細部的인 究明을 隨伴하지 않는 타고난 素質 및 家系的인 遺傳性으로 돌려 解析하려는 경향들이 앞서 말한 요소들에 해당한다. 이리하여 兒童發達研究를 통한 人間個體變化에 대한 心理的인 現狀 把握이 있기 이전에 人間行動 變化에 대한 規定이 이미 내리졌고, 그 테두리 속에서 兒童發達は 閉鎖된 展望을 벗어나지 못한채 논의되었던 것이다.

兒童을 그 자체로서 보려는 새로운 觀點과 함께 發達心理學의 科學的 研究가 시작되는데 있어 두 가지 劃期的인 思想의 貢獻이 있었다. 하나는 17C 말엽의 John Locke의 사상이요, 다른 하나는 19C 말엽의 Charles R. Darwin의 그것이다. Locke의 環境要因의 도입사상은 그 중요성이 兒童 研究에 있어서 學習理論에 입각한 補強(reinforcement)을 강조한데 있었을뿐 아니라 兒童을 그 자체의 立場으로 부터 理解하려는 理論에도 있었다. 즉, 主體者로서의 行動動機, 要求 및 아동이 지닌 限界性과 이에 따르는 保護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環境이란 테두리 속에 兒童을 位置하게 함으로서 그 主體가 어떻게 發達해 가느냐 하는 것을 불러는 基本思想

이 그것이였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行動主義 心理學的 觀點에서의 兒動研究가 시작됨에 있어 歷史的인 뿌리를 내리게 하였다.

Darwin의 進化論은 한편으로는 種族 相互간의 共同起源을 밝혀 냄으로써,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生存 鬭爭으로 기인하는 進化 結果, 種族內 특이한 變異性(diversity)이 있음을 立證해 줌으로써 생존하는 모든 有機體의 發達可能性을 결정하는 遺傳因子的 重要性을 確實한것으로 만들었다.

Darwin의 理論 이후 連續된 次元으로서의 動物과 人間研究에 대한 比較는, 따라서 兒動比較는, 종족내 上位系列 個體에만 국한되었던 固定 觀念을 打破함으로써 兒動發達에 관한 研究의 位置를 중요한 것으로 만들었다. 즉 兒童研究를 그 자체로서, 그리고 下位系列의 動物行動과 인간의 그것과를 比較하는 橋梁역할로서 이중 脚光을 받게 만들었다. Darwin이후 비로소 下位系列에 속하는 動物行動의 操作과 兒動發達에서 나타나는 行動觀察을 놓고 양자간의 어떤 聯関性을 逐出해 내려는 새로운 觀點이 생기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아동연구는 個體 構成要因의 根源과 發達에 重点을 둠으로써 그 자체를 위한 學問으로서 뿐 아니라 成人行動의 理解를 위하여 그리고 동물과 인간을 주제로 하는 比較心理學을 위하여 必要不可缺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19C 후반기 Darwin과 더불어 兒童心理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무렵 독일 Leipzig에서는 Wilhelm Wundt의 實驗心理學을 위한 歷史的인 心理學 實驗室 활동이 시작되었고, 미국에서는 Granville Stanley Hall이 發達心理學의 認識을 一般社會에 普及 시킴으로써 發達心理學의 아버지라는 稱號를 받기에 이르렀다.

20C 초에 들어서면서 John B. Watson의

行動主義 主張은 心理學 분야에서 廣範圍하게 그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으니, 內省法을 指摘하여 心理研究, 특히 아동연구에 부적당한 방법이라고 排斥하고, 行動을 心理學의 主題로서 그리고 客觀的인 觀察을 심리연구의 方法으로 採擇하였다. 극단적인 環境論者로서 Watson이 주장한 條件化등 學習 役割이 兒童發達에 기여하는 중요성은 아동발달의 다른 일면인 自然的인 成長過程을 인정할 여지를 없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Watsonian行動主義 견해에 입각한 心理學은 環境的 變因에 의하여 被造되는 대상을 客觀化 시키기는 하였으나 아동을 能動的인 면에서의 發達體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Watsonian系列에 입각한 연구는 Hullian 및 Skinnerian 行動主義 心理學으로 合流하였고, Clark L. Hull의 學習理論을 중심으로 行動主義가 全盛期를 裝飾하던 1960년대까지 近代 心理學에 가장 強力한 主流를 이루었다.

연령에 따르는 發達變化의 요인으로 遺傳的인 傾向性을 중요시한 Arnold L. Gesell은 環境要因의 影響력을 비록 무시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環境論的 行動主義와는 달리 개체의 발달을 遺傳的으로 미리 豫定된 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를 누 가지 立場에서 固守하였다. 즉, 인간에 있어서 個體發達은 一般的인 成長形態를 밟는 한편 有機體의 발달은 각기 固有한 發達速度에 준하고, 성장에 있어서의 이러한 差異는 근본적으로 個體 構成 要素的인 特徵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Gesell의 이와같은 見解는 1911년 부터 시작되어 그후 40여년 동안에 걸쳐 계속된 Gesell Institute of Child Development에서의 그의 아동발달에 대한 研究 業績을 評價하는데 있어 發達에 대한 解明을 追求함이 없었다는 이유로 하여 그 貢獻의 限界性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Darwin 자신은 遺傳論者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進化論에 자극받아 싹트기 시작하였던 環境-遺傳論爭은 1910년을 전후한 Alfred Binet 및 Théophile Simon의 知能測定研究에 새로운 脚光을 받는 한편, 解決을 期待할 수 없는 論題로서 1940년대 까지 계속되었다. 이 論爭은 行動主義 심리학자, 특히 學習理論에 입각한 행동주의 心理學者들과의 관계에서 볼 때, 그리고 그 學習理論의 全盛期의 영향이 心理學 全般에 걸쳐 波及되었던 것을 생각할 때 發達心理 分野에서 뿐 아니라 心理學 全般에 걸쳐 과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環境-遺傳 문제는 그 후 知能和 관련된 個人差의 연구과제로서 대두되고, 그 후 相對的인 重要性을 밝히려는 주제로 되어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發達心理 分野에서 하나의 중요한 論題가 되기 위하여는 環境-遺傳에 관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論議는 兩極端論의 立場이 아니라 相互作用論의 입장이어야 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있다. 相互作用論과 相對的인 重要性을 밝히려는 입장과는 어떻게 다른가? 거기에는 根本的인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前者에 있어서는 어떻게 相互作用 되는가 하는 것이 主題이고, 後者에서는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이 主題가 될 것이다.

드디어 아동을 能動的인 發達體로 보는 발달 심리학의 主流가 兒童研究 全般에 걸쳐 과급되기 시작하였다. 18C 중엽 Jean-Jacques Rousseau의 自然主義 觀點에 입각한 아동발달관의 重要性은 그가 아동을 能動的인 個體로 과약하였다는 점에 있었다. 아동을 自然과의 相互作用 속에서 발달하는 自主體로 보는 그의 見解에 의하면, 아동과 환경 간의 相互作用에 있어서 成人의 개입으로 인한 그 關係의 人爲的인 조작은 그 영향력이 二次的 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더 有害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Rousseau 에

의하면 兒童發達은 스스로 이루어 지고 형성되기 때문에 主體者로서 成長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思想의 根源을 Rousseau의 자연주의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이 主流의 現代的인 貢獻에 이바지 한 것은 Sigmund Freud와 Jean Piaget 라고 볼 수 있다.

20C 초를 전후한 Freud의 個體發達心理機制에 관한 이론은 그 영향력이 廣範圍함을 看過할 수 없다. 發達心理 側面에서 보는 Freud 理論의 重要性은 心理的 에너지의 處理機制가 아동으로 하여금 어떻게 正常人으로, 혹은 정상에서 離脫된 成人으로 발달하게 하는가를 記述한 데 있다. Freud의 個體發達 心理機制에 관한 理論은 비록 그것이 精密性을 결하고 있기는 하나 개체의 환경속에서의 相互作用을 통한 心理的 에너지의 適應機制發達을 描寫해 준다는 점에서 功力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今世紀에 있어서 가장 劃期的인 發達心理學的 공헌은 J. Piaget에서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네 段階로 構成되는 Piaget의 知的發達理論을 설명적인 것으로 볼 것이나, 기술적인 것으로 볼 것이나 하는 문제는 觀點에 따라 一次的인 解決을 보게 될 것이나, 그의 認知構成論的 發達理論이 特出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의 이론이 발달순서를 비롯하여 발달단계별 특징 및 특수 관련의 영향에 比較的 拘礙됨이 없이 취급할 수 있는 一般性和 보편성을 지녔다는 점이 특출하다고 할 것이다.

1930년대를 전후하여 全盛期를 이루었던 知能을 둘러싼 發達の 諸般 問題들을 固定的으로 보던 見解와 더불어 대부분의 연구가 發達規準을 主題로 하고, 또한 記述的으로 되어가던 研究 傾向으로부터 脫皮되기 시작하였다. 發達心理, 그리고 넓게는 心理學에 있어서의 문제의 초점은 人間行動의 變化的인 側面을 들여다 보고 그

現狀을 밝혀내는데 있는 것이지 몇 살에 무엇을 할 수 있는나를 알아 내어서 되어진 現狀들을 段階的으로 區分지어 들여다 보는데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認知發達에 관한 연구는 이 後者의 領域에 있어서 주춧돌의 役割을 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認知心理의 實驗的인 研究方向에 획기적인 變化를 가져오게 하는데 중요한 契機가 되었다. 아동이 스스로 발달해가는 과정속에 인간행동 변화의 面貌를 밝혀줄 씨가 심어져 있다는 것을 把握하고 그 意義를 보다 廣範圍한 心理的인 眼目에서 파악한 것이 J. Piaget였다. 現代心理學의 各 分野別로 찾고 있는 현상들과 관련지어 인지발달에서의 法則과 機制들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심리학의 탐구 목표인 人間行動의 現狀들을 體系의으로 밝혀 주리라는 것을 豫知하고 그 일을 現實的인 方向으로 이끌기 시작한 것도 Piaget였다.

Piaget 心理學의 raig은 文化比較心理學의 性格을 띠고 2차대전 이후 全世界的으로 이루어졌고 그 지식체계와 概念들은 남고도 嶄新한 양면적인 성격을 지닌채 계속 논의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Piaget 心理學이 理解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이후로 보아야 될 것이고, 그의 學術著書가 全面的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過去 20여년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67년 Clark University에서 있었던 Piaget의 美國心理學 聽衆을 상대로한 講演 - Heinz Werner Memorial Lectures—은 成功的이었다. 그러나 미국에 있어서 Piaget심리학의 本格的인 土着化는, 예를들면 Harvard의 Jerome Bruner와 그의 同僚들에 의해서 수행된 Piaget 認知發達論에 대한 미국적인 實驗研究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 그 후 계속된 Piaget 心理學에 대한 各處에서의 觀心과 檢證實驗을 통하여 계속 進行中에 있다. 個體發達過程의 理論的인 實驗的인 分析을 통한

이와같은 土着化 작업과정에서 명백해지는 사실은 Genevan 立場과 American 立場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Piaget 心理學에 대한 證明 혹은 反證을 수반한 그 모든 贊否의 論爭을 통하여 그의 理論이, 비록 枝葉的인 修正이나 變更을 요구할 망정, 全體的인 면에서 理論的인 기틀이 흔들리거나 무너짐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보아 Genevan 立場과 American 立場 사이에는 人間の 認知構成發達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合議가 基底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미국에 있어서 Piaget심리학의 앞으로의 展望은 심리학의 世代交替가 거듭됨에 따라 Piagetian - American Psychology로 완전히 美國化될 전망이 보인다. 그 時点에선 元祖上의 이름이 想起될 필요가 없게 될 것이고, 따라서 Piaget의 이름이 言及됨이 없이 그의 심리학이 논의될 날이 올것 같다. 마치 어느 토착화 현상에 있어서도 그러하듯이...

心理學 各 分野에 있어서 豫想되는 認知心理의 개입은 심리현상의 發達的인 根源과 過程을 看過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發達心理 分野와 필연적으로 밀접하게 關係지어질 것으로 본다. 예를들면, 學習心理學이 인간을 主題로 한 심리학이 되기 위하여는 兒童 學習에서 나타나는 變化를 主目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學習心理學의 論題는 既存하는 學習機制가 혹은 理論이, 人間 行動變化의 어떤면을 어떻게 밝혀 줄 수 있는나 하는데 있다. 學習理論에서 다루어져야 할 論題들은, 비록 下位系列 動物에서의 行動化 과정을 除外한다 하더라도, 認知發達論과 結付되지 않고서는 취급되기 곤란해 질 것이다.

心理學的인 行動變化에 대한 學習理論에 입각한 解決의 試圖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學習 定義에 介在되는 反

復 概念은 現代心理學이 自負할 수 있는 用語로서 매우 精密한 印象을 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獨立된 概念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느냐 하는것이 疑問이다. 學習現場이 요구하는 適應 遂行에 대한 개체의 能力面에서의 준비성과 아울러 개체가 環境作用에 개입하게 되는 機制에 대한 것을 考慮함이 없이는, 그런 단편적인 概念 複合에 의한 人間行動變化의 規定이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될 것이다. 보다 根本的인 解決策이 인지발달에서 구해져야 될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른 하나의 例로서, 人間 學習에서 그리고 모든 다른 認知行動 變化 과정에서 外的 要因으로 조정되는 賞罰의 效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러나 그러한 要因들이 人間行動 變化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必要不可缺한 것이 아닐수도 있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될것이다.

학습에서 中心 課題로 취급되고 있는 記憶을 斷片的인 현상으로서 다루려던 研究 傾向으로부터 연령에 따른 變化現狀에 중점을 두고 發達 側面으로부터 그것을 파악하려고 시도하는 研究方向의 轉換은 歡迎할 만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要点은 特定한 事例로서의 記憶 現狀이 인지활동의 進行過程으로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은 行動化에 의한 具體的인 實證으로서 취급될 性質의 것이라는데 있다. 개체가 保有하는 지식의 恒常性은 개별적 事例에 대한 보유가 아닐것이다. 個別의 事例는 끊임없는 認知活動에 의하여 기능으로서 연속될 뿐이고, 그 사례가 없어도 기능은 유지 될 것이다. 즉, 認知機能의 發達이 具體的인 事例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것이기는하나,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것을 다룰수 있는 기능이 喪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과정의 連續性에 주목하여야 하는 동시에, 認知 機能의 實際的인 進行 形成과 그 結果로서

특정지어질 산물과를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단 取扱된 소재들이 어떤 痕迹으로 남아있다가 다시 想起하게 되느냐를 물을 것이 아니라 知識取扱 現狀의 再演으로서 어떻게 過程化 되느냐를 문제 삼아야 될 것이다.

知覺과 認知發達は 더욱 직접적이고 밀접한 關係에 있다. 이 문제는 지각을 어느 수준에서 論議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基本的인 命題로 부터 시작될 것이고, 認知의 어느 면과 결부시킴을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서 그 限界가 規定될 것이다. 이 분야에 있어서 주목할 것은 외계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知覺能力이 가장 초보적인 것으로 부터 어떻게 점차 進歩된 수준이 知覺 機能으로 되어가는가 하는 지각정보 과정에 대한 說明機制의 문제이고, 이 문제가 새로운 각도에서 根本的인 해결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등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知覺의 여러가지 樣相중에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인지활동이 刺戟要素들간의 關係에서 보다 복잡한 體係의 구성을 가능하게 할때 비로소 지각활동에 있어서의 恒常性이 달성된다는 점일 것이다. 보다 진보된 수준에서의 知覺作用에서는 지각활동으로 특정지어지는 작용들 (예를들어, 비교, 연결, 분석등의 작용들)이 개재됨으로써 정확히 어디까지나 知覺活動이고 어디서 부터 知的活動이 시작된다는 것을 구별하기 곤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知能의 문제도, 知覺과 더불어 認知發達과의 關係에서 생각하여야 될 때가 왔다고 볼 것이다.

社會判斷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社會心理 영역에 있어서 사회판단이 제한된 단편적인 情報를 기초로한 知覺의 關係에 의하여 구성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지각적 관련성을 토대로한 個人行動 傾向으로부터 內的 心理狀態가 추리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각 장면내지 지각현상에 대한 說明機制가 要望되고 있다. 이에 즈

음하여 獨逸系 심리학의 중요한 貢獻의 하나로 넓게 주목을 받아온 Gestalt 理論이 사회지각 장면이나 現狀에 인용되는 경향을 본다. 知覺의 刺戟體를 전체적 구성형태로 보려는 Gestalt 심리학의 입장은 首肯할 만한 것이라 하겠으나, 그 形態構成의 역동적인 면을 취급할 만한 說明機制가 缺如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지각형태 구성의 變化的인 側面에서 基礎가 되는 발달과정을 다룬만한 이론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그 이론이 認知心理와 직접관계되는 지각辨의 諸般 課題를 다루기에 適습치 못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社會 態度 및 行動에 있어서의 認知 不調和 및 그 解消 현상등을 認知心理 體制에 의하여 해명하려는 시도는 극히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認知論的 解明의 시도에 있어 個人的 의식현상으로서의 態度, 意見, 信念 등의 認知 狀態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좀더 細分論的인, 즉 上述한 認知 體制나 현상들의 어떤 認知的인 側面이, 혹은 要素가 인지 부조화 현상

의 造成에, 혹은 그 解消에 어떻게 作用되고 있는가를 論하는 연구시도가 요망될 時期가 온 것으로 간주된다.

臨床心理 分野에 있어서의 認知 發達論의 介人は 患者가 治療者와의 面談을 통하여 자기 問題에 대한 통찰이 일어난후 계속 성숙하여 가는 기간동안을 넓은 의미에서의 認知發達 成熟過程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그 展望이 있다고 볼 것이다.

끝으로, 發達心理學의 動向을 과거 약 20여년간에 특히 重點을 두어 回顧함에 있어, 그리고 앞으로의 展望을 생각하는데 있어 점차 명백해지는 것은 發達心理에서 研究되는 問題들이 行動科學 分野 全般에 걸쳐 중요한 貢獻을 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다. 即, 發達心理學으로 向하였던 心理學 內에서의 인접분야 및 다른 行動科學 分野로 부터의 영향력이 그 方向을 바꾸어 逆流할 展望이 보인다는 것이다.